

합격기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눈물 젖은 빵을 먹되, 도전할 수 있음에 감사함으로 기억해야 할 것



이 신 애

- 1986년 7월 생
- 서울 상일여자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대 졸업
- 제52회(2010년) 사법시험 합격

I. 수기를 시작하며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15살이었던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단지 노래가 좋아서 음악가가 되겠다는 허황된 꿈을 꾸던 소녀였다. 음악을 특별하게 잘했던 것도 아니었다. 공부도 마찬가지였다. 그저 꿈을 꾸면 다 그렇게 되는 줄로만 알았다. 현실이 어떠한 세계인지는 모른 채로 말이다. 그즈음에, 여학교에 새로 오신 사회 선생님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학교로 부임하셨다고 들었다. 순진했던 15살의 나는 그 분이 마냥 멋있게 보였고, 법대에 가야겠다는 정말 막연한 생각으로 내 미래를 정해버렸다.

왜 내가 법조인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인지, 내가 진정 원하는 길이 이 길인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질문을 받아왔지만 한번도 제대로 된 대답은 하지 못했고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오로지 합격만을 목표로 달려왔다. '왜'라는 물음이 아직도 낯설 정도로 나는 지금도 그 답을 찾고 있다.

수기를 쓰기 위해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고 있는 나는 아직 수험생활을 하고 있는 훨씬 많은 실력자들과 내가 백지장 차이, 아니 부족할 것을 알면서도 이걸 쓸 만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 수험기간동안 읽었던 합격 수기에서 나는 그들의 방법론 보다는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공부했고, 어떠한 환경을 극복했는지, 나와 같이 초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또 있다는 것에 대한 위로와 위안을 받았다. 오히려 나는 공부방법론에 있어서라면 너무도 평범할 뿐이

었다. 어떤 합격생은 하루도 공부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 분들을 보면 충분히 휴식을 가지기도 했던 내가 이 수기를 쓰고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다. 다만 나는 그저 다룰 것 없는 수험생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내 수기를 읽는 친구들도 위로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II. 수험생활의 시작과 세 번의 성장

2006년, 법대생이라면 누구든 한번쯤 사법시험을 꿈꾸듯이 나도 선배들이 하는 것을 따라 학교생활을 하면서 기본강의를 한 번씩 들어보자는 생각으로 강의 Tape를 사서 듣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본서를 처음 접하는 내게는 법이라는 과목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었으며, 다음 1년을 휴학하고 열심히 공부해 보자는 생각에 그저 밑줄긋기용 강의로 2006년을 마쳤다. 2007년 처음 본 1차 시험에서 내 점수는 30점 언저리였다. 아무 것도 몰랐다. 사법시험이라는 막연한 목표와 그저 단순히 합격하면 좋은 것이라는 생각, 그것은 그 이후 점점 희미해져만 갔다. 다시 한 번 내 목표를 굳게 다졌다. 그저 멋지게 보여서가 아닌,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도전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었다.

휴학 이후 나는 그저 고시 공부는 신림동에서 하는 것이라는 말만 듣고 통학하기로 결정했고, 민법 강의를 등록 했다. 고시 공부에 한 발을 내딛은 나는 실강의에 매료되어서 거의 반년간 집-학교-신림동을 오갔다. 오가는 길에 나는 녹

초가 되었지만, 그 사이에 몇 자라도 더 보려고 주위 시선도 아랑곳 하지 않고 책을 읽었다. 그 후, 진도별 모의고사를 처음 접했을 때는 모의고사에 빠지면 '실패자'가 된다는 생각에 3법을 다 돌릴 때까지 빠진 적이 없었다. 새벽 6시면 학교에 출근해서 저녁 12시에 집에 갈 때까지 지치면서도 끈질기게 버텼다. 그 때 내 공부시간은 밥 먹는 시간과 휴식 시간을 빼면 12시간이 넘었다. 열람실에 매일 1등으로 출근해서 아무도 없는 열람실에 불을 켤 때의 그 뿌듯함 때문이었다. 결국 그 뿌듯함은 컨디션 조절 실패의 원인이 되었고, 그 후로 체력이 많이 약해졌다.

책 욕심이 많던 나는 서점에만 갔다 오면 어떤 책이 필요한 것인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책을 몇 권씩 사오는 통에 어머니가 많이 고생하셨다. 그래도 1년간 사둔 책은 버린 적 없이 한 번씩이라도 꼭 보았다. 하지만 그 책들은 시험이 막바지에 이르러 갈수록 내게 버거운 짐이 되어버렸다. 진도별 모의고사를 보고, 판례 강의를 듣고, 스터디를 하면서 점점 더 쌓여만 가는 책 덕분에 막판에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단권화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만 했다. 몇 회독을 해야겠다는 목표도, 어떤 책을 봐야겠다는 목표도 없이 허둥지둥 닥치는 대로 읽었다. 결국 그 해 1차 시험에서 평균 3점차 실패로 끝이 났다.

2008년, 나는 새로 기본서를 읽고 강의를 들어가면서 매일 새로운 기분으로 공부했던 것 같다. 마치 처음 1년간 해온 공부가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

같이 1회독을 늘릴 때마다 기본서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고, 새로운 해석이 가능했다. 또 한 번의 실패를 막으려고 밑줄에 밑줄을 긋고 자주 틀리는 부분과 어려운 부분을 계속 체크해 나아갔다. 하지만 성실은 배반하지 않는다는 일념에 '성실=공부시간의 극대화' 라고 단정하고 공부시간을 확보하고, 무리한 계획을 세워나갔다. 그 덕택에 진도에 허덕이던 나는 2%부족한 공부를 하고 있었고, 시간이 없다는 핑계 하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정리하지 않고 암기를 서둘렀다.

1차 시험일 아침, 그동안 쌓여왔던 스트레스와 지친 몸 때문에 많이 아팠다. 스트레스성 장염 때문에, 시험 보는 내내 식은땀을 흘렸다. 형법 시간 5분을 남겨두고 남은 문제는 8문제 가량 되었다. 그 때 내가 어떤 심정이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끔찍할 정도였다. 허둥지둥 정신없이 남은 문제를 풀고, 한 문제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 30초 남겨두고 마킹했다. 남은 30초에 문제를 봤더니, 30초가 걸리지도 않을 만큼 쉬운 문제였으며, 내 마킹은 정답과 다르다는 걸 알고는,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른다. 나는 그 해 총점 1점 차이로 또 실패를 맛보았다. 그리고 그 해에는 복수 정답으로 인해 구제된 수험생들로 인해 복수 정답에 해당 사항이 없던 나는 두 번 좌절해야 했다. 하지만 3번의 실패는 내 성장의 발판이 되었음을 후에야 깨달았다.

III. 동차 합격의 먼 산을 넘어가는 과정 - 공부방법론

1. 다시 사시에 도전하기까지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첫 번째는, 내 체력은 무시한 채 소화하지도 못할 스케줄에 무리하게 나를 끼워 맞추려고 했던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일도당토않은 자만심이었다. 잘못된 생각이었고 어리석은 생각이었음을 금방 깨달았지만, 같이 공부하던 다른 사람들이 합격한 것 때문에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짐을 챙겨 집에 왔던 발표일 하루는 가슴이 아플 정도로 많이 울었다. 친했던 선배들이 2차생이라는, 이제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 된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멀어만 지는 건 받아들여야 하는 사실이었다. 슬럼프라는 것을 모르던 나에게 각종 슬럼프가 찾아왔다. 이유도 모르게 울적한 날이 많았다. 모두가 나를 싫어하는 것만 같았고, 내게 지루함을 느끼는 것만 같았다. 미래에 대한 회의감이 나를 덮쳤다. 무엇보다 부모님의 기대가 큰 실망감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하염없이 작아져만 갔다. 기도를 했다. '내게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주신다면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요?' 하지만 금방 깨달았다. 나는 또 누군가를 비난하고, 탓하고 있었다. 내 안에 감사란 없었다. 그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왔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내가 자만심을 키우게 되는 씨앗이 되었던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문득 다시 정신을 차렸다. 다시 시험에 도전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나서는 발걸음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얻었는지 모르겠다. 개인적으로 신앙심이 커가면서 내가 했던 셀 수 없는 생각들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지극히 평범했지

만, 나는 나를 특별하다고 착각했던 것에 반해, 내 주위의 환경은 너무나도 특별했고 소중했다. 세상의 어떤 부모님도 모두 같으시겠지만, 남들과 다를 바 없는 내가 상처받지 않고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모든 뒷바라지를 해주신 부모님이 계셨고, 내가 힘들어 할 때마다 신경 써 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그것이 나를 슬럼프에서 구제해주고 또 한 번 도약하게 만들어 주었다.

2. 2009년 2월부터 4월 합격자 발표일까지

2009년 1차 시험을 치르고 1차 시험 발표가 나기 전까지 나는 무작정 친한 사람들과 함께 연수원에 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동차합격의 꿈을 가지고 예비 순환이 아닌, 3순환에 도전했다. 1차 시험을 치른 이튿날, 나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행정법 교과서를 사고 3순환 동영상 강의를 신청했고, 다음 날, 첫 3순환 시험에 참여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당돌했다. 3순환 시험에 참여한다는 것이 그 당시 2차팀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당혹스러운 일이기도 했을 것이며, 내 자신에게도 참 힘든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땀 알 수가 없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없는 시간을 쪼개가며 새벽에 열람실 문을 닫을 때까지 3순환 동영상 강의를 들어가며 모의고사를 봤다. 발표일이 되기 전까지, 행정법, 상법, 형소법, 민소법까지 공부했다. 3순환 동영상 강의에서는 거의 요점 정리에 문제풀이 위주였는데, 아무리 들어도 모르는 부분은 skip하고 강의에서 나온 부분을 나름대로 밀물쳐가며 읽었다. 하지만 기본도 안 되어 있었던 내가 2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이것을 소화했다는 것은 무리이고 중요한 부분이 어딘지 아는 정도와 3순환 모의고사를 통해 사례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익히는 정도뿐이었다. 바쁜 하루 때문에 쉬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 새벽 3시면 집에 도착해서 잠을 자고 다시 아침 8시에는 열람실에 앉아있어야 했다. 그저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달리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몸이 힘든지도 모른 채 그저 시간 부족과 이해 부족으로 하루를 채워나갔다. 그 틈에 나는 3순환 시험을 보는 독한 1차생으로 재시팀 사이에서 알려질 수밖에 없었고, 소외감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다가왔다. 나는 그저 어디에도 끼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말도 조심해야 했다. 문득 문득 나에게 부딪혀 왔던 소외감 때문에 두 달여 동안 혼자 숨어서 얼마나 울었는지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그 소외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나는 다시 1차생으로 돌아가야 했으므로.

3. 2009년 4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1) 1차 공부에 관하여

1)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여러 가지 고민거리 - 단권화 그리고 스테디

1차에서 탈락의 고배를 3번 마신 나는 하루 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때야 비로소 나는 내 자신을 독하다고 생각했다. 3번의 실패가 내게 준 것은 시행착오들을 통한 성장도 있었다. 놀라운 것은 내가 교과서를 또 한 번 새롭게 읽었을 때, 나는 마치 다른 관점에서 쓴 다른 교수님의 교과서를 보는 것처럼 또

다시 새로워졌다는 것이다. 비로소 나는 왜 사람들이 회독 수에 그리도 집착하는 것이며, 왜 중요한 것인지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었다. 내가 느낀 것은 큰 틀이었다. 판례 하나 더 외우기, 학설 하나 더 알기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머릿속에 큰 체계를 그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전 3년 동안 알지 못했던 그 체계는 수험 생활 대략 4년차가 되어 서야 어느 정도 눈에 보이기 시작하였다.

기본서에 대하여, 민법은 지원팀 교수님 교과서(이태섭 강의), 형법은 송헌철 신강(송헌철 강의), 헌법은 정희철 교수님 교과서(박철환 강의)를 선택하였다. 그 이외의 판례집이나 문제집도 보았지만, 그것들은 단권화를 위한 자료 이상은 아니었던 것 같다. 나의 경우, 판례집도 민법, 형법, 헌법 모두 객관식 판례집 외에는 따로 본 것이 거의 없고, 그것들도 몇 회독씩 반복한 것은 아니었다. 사실 교과서로 무엇을 택할 것인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강의에서 채택한 교재였던 것뿐이었다. 그러므로 교재의 선택은 지금의 수험생들도 고민할 부분은 아니라는 점을 나는 충분히 말하고 싶다. 오히려 책과 관련해서는, 막판에 수 회독할 한 권에 단권화 작업을 꼭 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실제로 단권화 작업은 어려운 작업이고 실천하기도 어렵다. 무조건 강사가 가르쳐주는 대로 밑줄을 치고 자료만 붙이면 되는 것이 아니었다. 약한 부분에 대한 보충을 충분히 하는 것, 여러 책을 보지 않아도 다른 것에 눈길을 주지 않을 정도로 탄실

한 기본서를 만드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보면, 헌법의 경우 나는 판례집을 따로 기본서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판례 전체 사실관계에 대해 약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판례집을 빌려 기본서 해당 부분에 정리하기 시작했다. 판례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들이 무엇이었는지, 중요한 결정부분은 무엇이었는지, 기본서에는 산발적으로 소개되어 있었으므로 각 부분 모든 판례에 관련 쟁점을 모두 적고 연결되는 부분의 쪽수를 적어 항상 같이 보았다. 이런 식의 단권화는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후에는 빠른 회독을 위한 지름길이 되기도 하였다. 또 한 가지 보태자면, 되도록 문제를 많이 풀어 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내 경험에 비춘 결론이다. 나는 책 육십 다택에 시중에 나와 있던 웬만한 문제집은 풀어보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였다. 사실 이것도 사람 나름의 성향에 따라 다른 것이기는 하지만,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문제에 대한 감 같은 것들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많이 생긴다. 시간을 정해 풀어 보는 습관은 시간 내에 정신없이 풀어 실수를 많이 하는 오류를 꽤 줄여 준다. 또한 어떠한 유형이 나오더라도 많은 문제를 풀어본 사람은 당황하지 않고 해낼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 같다. 아무튼 책의 선택과 관련하여서는 이 이외에 더 이상 다른 이야기를 할 것이 없다.

스터디에 관하여, 나는 처음 2007년에 진모스터디를 시작했다.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나는 내 해석과 달리 생각하고, 내가 당연히 넘겼던 문제들에 대해

서 의문을 가진다는 것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어떤 것들은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또, 강제성 때문에라도 진도를 밀리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 장점들 때문에 2008년에는 수없이 많은 스터디를 했었다. 하지만 어쩌면, 스터디에 대한 집착은 나도 모르게 내게 독이 된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 수많은 스터디를 경험해 오면서 같이 공부하는 동료들을 얻었지만, 혼자 자습하는 시간을 지나치게 뺏어간 감도 없지 않다. 사람이 모이는 자리이니만큼 회식도 있고 서로 간 갈등도 생길 수 있었다. 2009년에는 많은 고민 끝에 8월 이후 스터디는 하지 않았고, 스스로 진도를 맞춰 나가기로 다짐하였다. 하지만 이것도 개인차는 클 것이라 생각되며, 이런 저런 장단점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 일 뿐이다.

2) 2009년 4월부터 11월까지의 1차 공부방법론

불합격 통보를 받고 나서부터 8월이 될 때까지 기본서를 1회독 하자는 마음을 먹었다. 예비순환 강의와 함께 하는 공부였고, 1학기를 복학한 상태여서 공부 시간이 충분치는 않았다. 보름 정도를 물 흐르듯 보내다가 스터디를 조직하여 민법은 A#문제집, 형법은 기출문제와 신체계 판례형법, 헌법은 기출문제를 풀기로 하였다. 아침 8시에 출근하고 저녁 12시에 집에 가는 생활이 시작되었다. 개인적으로 교과서를 한 번 읽은 후 스터디 준비로 문제집을 풀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2회독을 하는 것이라고 자기 위안을 하며 지친 마음을 달랬다. 교수님께는 죄송했지만, 진도의 압박 때문에 수업 시간에 문제집을 풀곤 하기도 했다. 여름 방학을 맞을 때까지 나는 수업과 예비순환 강의와 스터디로 개인 자습 시간의 절대 부족 현상을 맞았지만, 공강시간, 아침 짜투리 시간과 예비순환 강의 후의 시간을 틈틈이 이용하여 진도를 겨우겨우 맞춰가고 있었다. 그리고 8월이 되어 나는 각 과목 1회독을 마쳤다.

수험 생활 4년차 교과서는 이미 밑줄이 몇 번씩 그어져 있었고, 웬만한 것은 단권화 되어 있었으므로, 책을 읽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따라서 약하고 많이 틀리는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를 시작했다. 개인적인 성향에 비추어, 체계가 잘 잡히지 않는 부분에 대해 단순 암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하였다. 필요한 곳은 표를 사용하면서 비교하고, 비슷한 부분이어서 자꾸 틀리는 부분은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비슷한 부분을 찾아내어 쪽수를 적어 두고 어떻게 다른지 자꾸 눈으로 보게 하였다. 그러한 식의 방법은 내게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 후 11월까지 2회독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8월에 스터디가 끝나면서 문제집은 모두 과감하게 버리고 이때부터 기본서에 충실한 공부를 시작하였다. 진도별 모의고사는 지난 2회의 경험에 비추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생략하되, 회독 수를 늘리는 방향을 택했다. 기본서 한 권이었고, 몇 년 동안 읽었던 책이니

만큼 빠른 속도로 읽어 나갔다. 하지만 시간에 있어서 나는 여유로운 편을 택했다. 지난 8월까지 짝 채워왔던 스케줄 탓으로 체력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주 일에는 집에서 쉬고 평일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저녁 11시 30분까지 공부하였다. 이 시기에 주말에도 쉼 없이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나는 자꾸만 뒤처지는 기분에 불안하기도 했지만, 내 상황에 맞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컨디션 조절에 더욱 집중하기로 하였다. 그것은 막바지로 가면 갈수록 더욱 절실한 것이었다.

(2) 2차 공부에 관하여

4월부터 6월 2차 시험이 있을 때까지 나는 학교에서 예비 순환 강좌를 들었다. 내가 4월에 예비순환팀으로 전환했을 때에는 이미 형사소송법과 행정법 강의는 지나간 이후였다. 하지만 상법, 민사소송법, 그리고 기본3법 예비 순환 강의를 들으면서 교과서를 정리하고 기본을 조금이나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래도 앞에 얘기했듯이 스튜디오 인한 개인 자습시간 부족 때문에, 예비 순환 강의에 대한 복습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나는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고 고민한 끝에 다시 한 번 동차의 목표를 세웠다. 1순환팀에 합류하여 1차 과목과의 병행을 선택하였다. 1순환 시험에 참여한다는 것은 전에 3순환 시험에 참여하는 것만큼 눈치가 보이는 일이었고, 외로운 일이었다. 그치만 그저 그것 때문에 내가 도전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싫었다. 2차팀이 2차 시험을 치르는 4일동안 나는 도시락 배부차 가서 그

들이 시험을 치르는 시간동안 같은 마음으로 그 곳에 있었다. 그 마음을 기억하고 싶었고, 새로운 다짐과 꿈을 가지고 싶었다. 그리고 나는 다시 평상으로 돌아왔다.

7월부터 1순환 기간이었다. 이때부터 11월이 될 때까지 오전과 오후를 나누어 1차 과목과 2차 과목을 공부하였다. 내가 처음 선택해야 했던 것은 1순환 강의를 들으며 공부해야 하는지였다. 재기 본기 쌓기로서 중요했지만, 1차 과목까지 공부해야 했던 내게 무리한 선택이었다. 그래서 자습을 선택했다. 진도에 맞게 자습하고 1순환 시험을 꼬박 꼬박 보기로 했다. 책 선택과 관련해서는 강의에서 쓰는 교재로 선택하였다. 참고하자면, 행정법은 행정법 개론, 조현 암기장, 사례집, 형소법은 신형사소송법, 사례집, 민소법은 통합 민사소송법, 사례 민사소송법, 상법은 김혁봉 상법신강, 황의영 사례집, 헌법은 사례헌법연습, 단문헌법연습, 민법은 노재호 교안, 박승수 사례집, 형법은 더 형법, 이계바 정도였다.

1순환 기간 동안의 나의 목표는 책을 단권화 시키는 것, 중요한 쟁점에 대한 파악과 사례연습이었다. 조현 강사가 가르쳐 준 방법을 참고해서 형광펜, 빨간색 펜, 파란색 펜 등으로 밑줄을 그었다. 중요한 쟁점부분에 표시를 해두고 그 부분의 어느 정도의 목차를 정리했다. 교과서에 없지만 문제 등을 통해 부각된 쟁점에 대해서는 따로 적어두었다. 또한 2차 공부는 키워드 헌법과 같은 나만의 쟁점 노트를 만들어 쟁점이 나올 때 꼭

나와야 할 목차와 세부 내용을 중요 단
어 위주로 적고, 관련 쟁점을 함께 적어
놓는 것이 중요 쟁점에 대한 개괄적인
체계잡기와 핵심적인 내용의 암기에 도
움이 되었다. 하지만 나만의 노트를 만
드는 것은 이때에는 시간적으로나 공부
의 성숙도로나 힘들었고 그저 매번 보는
1순환 시험을 통해 놓쳤던 쟁점을 정리
하고, 시험에 잘 나오는 중요 쟁점을 다
시 한 번 되새겨 외우는 작업이 주가 되
었다. 문제 해설지를 꼼꼼히 읽고 정리
하였다. 같은 쟁점으로 보이지만 기본기
가 부족하여 잡아내지 못했던 것들이 많
았고, 교과서 해당 부분을 반복해서 읽
었다. 3순환과 예비순환 모의고사를 다
시 풀면서 그 때에는 알지 못했던 쟁점
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였다.

4. 2009년 12월부터 2010년 2월 시험일 까지

1차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
12월부터 2월까지 약 4회독을 하는 계
획으로 11-6-4-1정도였던 것 같다. 사
이사이에 선택과목인 노동법을 하루 내
지 이틀정도 투자하였다. 이 기간에는
기본서를 전보다 더 빠르게 겹쳐진 밑줄
로 강조된 부분만을 보고 학교에서 하는
각 학원의 전범위 모의고사를 모두 응시
하였다. 전범위 모의고사는 내 실력 체
크용으로 틀린 문제와 문제를 풀 때 모
르는 지문을 표시한 것 위주로 교과서
해당부분을 체크하고 반복하여 보았고,
비중있게 복습하지 않았다. 진도의 부담
이 모든 수험생을 짓누를 시기였기 때문
에 진도를 맞추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도
고 판단했고, 과감히 버릴 것은 버려야

했다. 시험 전날은 최신판레집과 헌법부
속법령집을 각각 보고 충분히 일찍 집에
갔다.

내게 중요했던 것은 여유였다. 몸이
약했던 내게는 휴식이 충분한 편이 나았
다. 심적으로도 스트레스에 예민했던 내
게 mind control의 시간은 중요했다.
이를 기반으로 삼아 나는 2010년 1차
시험에 합격했다.

5. 2010년 2월부터 동차로 합격하기까지

합격 후 목표한 바대로 동차를 노리기
위해 동차팀 모의고사에 들어갔다. 하지
만 처음에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시간
내에 쓰기도 벅찼고, 세부내용이 생각나
지도 않았다. 1학기를 복학했던 터라 진
도도 터무니없이 많이 밀렸다. 하지만
일단 동차팀의 일정대로 6월까지 2회독
을 목표로 하고, 정리했던 교과서를 읽
고 중요한 부분은 사례집으로 보충하면
서, 모의고사를 치렀고, 기억이 안나는
쟁점의 경우 교과서를 참고해 가면서라
도 일단 답안지를 다 썼다. 2순환인 5월
중순부터 마무리 특강을 듣고 행정법은
조현 암기장, 형소법은 이지민 요약자
료, 민소법은 이창한 사례집, 상법은 상
법신강, 헌법은 사례,단문 연습, 민법은
교안, 형법은 이재상 요약자료를 돌렸
다. 시험보기 하루 전에는 시간이 없었
으므로 마무리 특강 때 나누어 준 중요
쟁점사례자료를 보았다. 시험장에서는
동차팀 모의고사 문제를 마지막으로 정
리했다. 이 시기가 수험생활 중 가장 힘
들었던 시기였고, 가장 시간이 없었던
시기였다. 다른 재시생들이 집에 가고
나서야 열람실을 나오는 날들이 많았다.

하루 종일 입을 여는 시간도 밥 먹는 시간과 한숨 쉬는 시간외에 많지 않았다. 부족한 나에게 버거운 짐 같았고,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내가 이 과정을 해낼 능력이 있는지 매일 내 자신을 의심해야 했다. 이런 나를 그 시간동안 일으켜 세워 준 것은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라는 짧은 성경 말씀과 기도였다.

시험을 치루는 4일 동안 나는 밥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시험을 치렀다. 어쩌면 실레발을 치는 것일 수도 있었다. 그저 목표였기에 동차는 한 번 꺾을 수 있는 꿈과 같은 것이었다. 많은 실수를 했다는 판단 하에 미련을 버리고 4일 간의 시험이 끝난 후 나는 재시탐의 시간표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 날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헌법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했다. 전화가 왔고 나는 또 하염없이 울었다. 나는 1년 전 그 날처럼 책을 챙겨서 집에 왔지만,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동차 합격이었다.

V. 마치며 ; 1%의 가능성, 이것이 내가 갈 길이다 - 나폴레옹

모든 수험생들이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나는 감동적인 실화를 쓸 만큼 가난한 수험생도 아니었고, 이겨내지 못할 지병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에게나 그렇듯이 개인적인 상처나 어려움, 슬럼프는 없었을 리 없다. 그저 나도 평균적인 수험생의 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책을 사는 것조차 어려움을 가지며, 신체의 장애를 딛

고 달리는 사람도 있다. 현실의 냉혹한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버둥대며 하루를 사는 사람도 많다. 그런 것을 보면 평범한 수험생이었다는 것이 합격이라는 산을 넘는 큰 힘이 되었다는 것에 감사해야 했다. 한 선배가 “평생 동안 수험공부만 하면서 사는 게 어쩌면 더 행복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지금처럼 나는 용돈을 받고 걱정 없이 공부만 할 수 있다면.” 라고 한 적이 있다. 그 때 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지긋지긋한 공부의 굴레에서, 아니 고시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해할 것도 같다. 현실의 이런 저런 문제를 모두 뒤로 한 채 목표를 향해 달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 지를.

그러므로 수험 생활은 고통이 있지만 감사해야 한다. 이 길에 도전할 수 있게 해준 모든 것에. 아무리 내 자신이 혼자 잘나고 스스로 똑똑한 것 같아도, 그러한 능력을 준 하늘에게 감사해야 하고, 그렇게 크도록 교육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해야 한다. 특히 가족..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부모님께서 내 수험생활을 감당하고 계신 것은 정말 큰 감사이다. 나는 아직도 철이 덜 든 불효녀이지만, 어머니께서 내 뒷바라지를 위해 낯선 곳에서 우울증으로 고생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무도 모르게 울었다. 눈으로 보이게 나를 위해 힘써 주시지 않는다고, 항상 나에게 스트레스만 준다고 부모님께서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합격으로 인해 끝난 것이 아니며 더 큰 산을 넘기 위한 하나의 연습과정일

뿐이다. 누구에게나 합격이라는 과정을 넘는 산은 어렵고 고달픈 것이고, 눈물 젖은 빵을 먹는 기억쯤은 누구나 하나씩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억 때문에 지나친 자기자만에 빠져들 수 있다. 합격이라는 문턱을 넘어서자마자 자신을 인생의 승리자라고 자만하는 것은 앞으로 향해갈 기나긴 여정에 독이 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유리한 상황이라고 자만하면 안 되며,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굴할 필요가 없다. '나는 해낼 수 있고, 해낼 자격이 충분하다.' 라는 자신감과 함께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는 것과 성장의

슬픈 기억을 가지고 있음에 감사한다면, 이것이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이 되며,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되므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합격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없고, 합격하지 못할 사람도 없다. 특별한 사람만이 합격할 자격을 가진 것이 아니다. 앙드레 말로는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고 말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자신과의 싸움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그 자격은 이미 충분히 주어졌다고 이야기 하고 싶다.